

경인년(庚寅年) 새해 새로운 대도약을 기대한다

노 승 행
대한공증협회장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대한공증협회’가 설립된 지 30년 만에 ‘공증인’이 주체가 되는 ‘대한공증인협회’로 개명을 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뜻 깊은 해이다. 또한, 근대적 공증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공증제도의 미래지향적 전환기를 맞는 역사적 의미도 한데 어우러진 해가 될 전망이다.

협회는 1979년 12월 당시 서울공증협회가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전국적 규모의 비인가 단체로 출범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20년이 흐른 1999년 7월 공증인법에 협회 설립근거가 입법화되면서 법정임의단체로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어 한차례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는 금년 2월 7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증인의 회원가입이 의무화되는 실질적인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다시 한 번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타 직역 전문가단체에 비하여 국가사무라는 공증의 특성상 회원단체로서의 역할 측면은 어느 정도 그늘에 갇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발전과 직역확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전임 협회장을 포함한 여러 임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변호사겸업 공증제도(인가공증인)를 법무법인의 형태로까지 확대시켜 발전시키는 역할의 중추에 섰으며,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서증서 사본과 인증문 사본 보존을 법률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공증실무 과정에서는 우선 시행하여 추후 입법화를 선도하기도 했다. 또한 공증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서서 하지 못했던 공증인보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공증업무 처리의 기준을 마련한 『공증실무』를 펴내 공증의 현장에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금년부터는 오래 전부터 연구해 오던 선진 외국의 공증제도인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가 우리 협회의 끊임없는 건의에 따라 공증인법에 도입되어 시행되는 결실을 맺고 있

다. 또한 지난 정부가 2004년도에 변호사겸업 공증제도 폐지를 추진하던 당시, 협회가 앞장서 동 제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입법과정에서 이를 지켜내면서, 오히려 금년부터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였던 겸업 공증제도를 인가공증인이라는 명칭으로 공증인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가져오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에 따라 협회 또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증인’이라는 전문가 명칭을 협회 명칭에 포함하여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회원가입 임의단체에서 이제는 의무가입 단체로 그 성격이 바뀌면서 공증제도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 단체로서의 목소리를 가일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협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회는 재정적 기반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변변히 독립된 사무국은 물론 소속 직원도 없다가, 최근에 들어 사무국도 일부 확장하면서 직원도 2명으로 늘어난 것이 현실일 정도로 협회의 기틀은 상당 부분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협회가 제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협회는 금년 상반기중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회칙 제정과 조직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형식만 갖추게 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협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행정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 협회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은 연회비 수준으로는 협회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해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10월 경에는 우리 협회가 5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국제공증협회(U.I.N.L)의 회원국 가입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한국의 공증제도는 물론 ‘대한공증인협회’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日新日新又日新”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 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하라고 한 옛 말처럼, 우리 협회는 이제 새롭게 다시 한 번 태어나 드높은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고 있다. 올 해는 60년 만에 맞이하는 백호랑이 해라고 한다. 우리 협회와 모든 공증인,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공증제도가 백호랑이의 기상처럼 산천을 울리는 포효로 멀리 뻗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경인년이 되기를 기대한다.